

청소년의 가출횟수 및 청소년쉼터 이용경험에 따른 집단 특성 검증*

김지연** · 정소연***

초 록

이 연구는 가출횟수와 청소년쉼터 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청소년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범주화한 뒤, 각 집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적응 및 비행행위에 근거할 때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데이터에 대한 2차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먼저 가출횟수에 따라 청소년들을 무가출, 가출1회, 반복가출 집단으로 구분한 뒤 판별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 세 집단이 서로 유의하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 쉼터 인지 및 이용경험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쉼터미인지, 쉼터비이용, 쉼터이용 집단으로 구분한 뒤 동일한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반복가출 및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았고, 남자, 비(非)양친가정, 빈곤가정의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와의 갈등, 학교폭력 피해, 지위비행, 성비행, 폭력비행 경험 역시 높았던 반면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경험 및 청소년쉼터 이용에 따라 구분된 청소년집단에 대해 차별화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가출청소년, 가출횟수, 청소년쉼터 이용경험, 판별분석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후속연구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jungsy@swu.ac.kr

I. 서 론

일반적으로 가출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성가족부, 2014). 가출은 말 그대로 ‘집을 나온 상황’인데, 성인과 달리 청소년이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지위비행(地位非行, status offender)에 해당한다. 현행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할 경우 우범소년으로 규정하여 범죄소년, 촉범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가출행동이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구속을 포함한 법적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기 가출행동과 가출청소년에게 심각한 낙인(stigma)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가출은 비행 및 일탈행위로 연결되는 관문(gate-way)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선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소년업무처리규칙에는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불량행위소년(소년풍기사범)’에 대한 주의, 조언, 제지, 보호자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매년 일제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경찰은 2,278명의 가출청소년과 14개소의 집단합숙소를 발견하는 등의 수색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경찰청, 2012). 그러나 가출의 원인에 대한 개입 없이 ‘단속’만 하는 것은 가출청소년을 공공장소에서 몰아내어 이들이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불가시성(social invisibility)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전문가가 아웃리치를 통해 가출청소년을 찾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가출청소년이 처한 상황도 더욱 악화되고 이들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가속화될 수 있다. 즉, “가출을 지위비행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일종의 공공보복주의(revanchism)에 해당하며 청소년이 공공장소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는 비판(Gibson, 2011)은 이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원인 1순위는 ‘부모와의 갈등’이며(여성가족부, 2012;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쉼터 입소자 중 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전체 입소자의 약 32% 수준에 불과하다(김지연, 정소연, 2014). 이는 가출의 원인과 상황의 다층성(multitude)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개입과 접근이 필요하다

는 주장을 뒷받침한다(Gibson, 2011).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가출 후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범죄의 가·피해에 노출됨으로써, 결국 다른 비행 및 범죄행위로 진입하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김지혜, 2005; Miles et al., 2008; 윤선미, 이나영, 2012). 이 때문에 가출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가출행위보다 가출의 원인과 가출 이후에 경험하는 낙인, 부정적 인간관계, 범죄의 가·피해상황과 같은 다중위험요인(multiple risk-factors)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199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소년비행예방지침은 “청소년에게 일탈, 비행, 우범과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범죄로 이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인화하는 입법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94년 12월에는 거리아동의 증가와 이들이 처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각국이 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인권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후 200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10호(소년사법에서의 아동 권리)도 지위비행 규정 철폐를 재차 권고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거리아동의 생존행위에 대한 범죄화 중단을 국가 우선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듬해 1월에 제출된 유엔인권최고대표보고서는 거리아동에 대한 낙인과 경찰 검거는 폭력에 대한 노출과 형사제도로 이행하게 하므로 가출과 같은 생존행위를 비범죄화하고, 거리아동이 생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거하거나 비행소년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였다(UN Human Right Council, 2011; UN General Assembly, 1990; UN Committee on the Right of the Child, 2007; 김지혜, 2013 재인용). 이와 같은 권고는 청소년의 가출행위 자체가 사회의 도덕과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 규정할 수 없고, 청소년의 가출을 지위비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불과하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가출행위보다 가정 밖 상황에 초점을 두고 가출청소년이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정적인 사회화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의 조기개입 책무를 천명한 것이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단속과 처벌보다 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의 근거는 가출청소년들이 경험한 환경적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영국 The Children's Society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는 가출행동이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즉, 가출경험이 많은 청소년은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

있는데 가족이 결정적 영향요인이었으며, 특히 친밀감이 낮고 갈등이 높은 가정환경에서 청소년의 가출 위험이 증가되었다(Rees, 2011).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청소년 한 명 당 가출횟수 및 위험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가출 이후 즉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와 긴급거주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위험과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The Children's Society의 연구는 가출청소년들이 비가출 청소년에 비해, 그리고 반복 가출 청소년들이 1회성 가출을 한 청소년에 비해 환경적으로 보다 불운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함께 청소년들이 가출 후 쉼터에서 보호받는지 여부가 가출청소년들이 어떤 욕구와 위험상태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즉, 가출횟수와 쉼터이용 여부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된 청소년들의 각기 다른 욕구와 상황에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 아닌 가정 밖이라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가출횟수와 청소년쉼터 이용경험이 각기 다른 청소년 집단이 서로 어떤 차이와 특성을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 가출을 1회 경험한 청소년, 그리고 반복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적응, 비행행동 등에 기초할 때 서로 다른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밝힌다. 둘째,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청소년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청소년, 쉼터를 알지만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적응, 비행행동에 기초할 때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가출현황: 가출횟수와 집단 특성

가출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통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에 신고·접수되는 실종아동 통계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른 생애가출경험률을 근거로 규모 추정치가 활용되고 있다. 먼저 실종아동에 대해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실종아동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간 매해 약 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경찰청, 2014). 실종아동은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견 즉시 경찰신고 및 보호자 인계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청(2014) 자료에 따르면 실종아동 가운데 귀가조치 비율은 매년 약 99%에 달한다. 실종아동 통계는 가출청소년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신고·접수되지 않은 사례가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유괴나 사고와 같이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가족과 떨어지게 된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 현황을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한다. 이로 인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한 청소년의 생애가출경험률이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생애가출경험률은 10%를 상회하여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한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4).

한편 가출횟수는 일시적, 충동적 가출과 반복가출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가출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 2회 이상 반복 가출과 1회 가출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44%와 56%로 확인되는데(여성가족부, 2014), 가출경험의 시간적 기준을 최근 1년이 아니라 생애전체로 확대할 경우, 1회 가출 청소년의 비율은 다소 낮아지고 반복 가출 청소년의 비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의 자료에서도 유사한 통계수치가 확인된다. Pergamit(2010)는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일회성 가출과 반복가출의 비율은 대략 절반 수준이고, 가출청소년 1인당 평균 가출횟수는 약 3회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남미애 외(2012)의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은 평균 9.1회, 여자청소년은 평균 7.1회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2회 이상 반복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은 가정환경이 취약하고, 거리에서 생존하는 법을 습득함으로써 가출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Jones, 1988; 백혜정, 방은령, 2009; Fernandes-Alcantara, 2013). 특히 학업성적과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이 낮고 폭력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가출횟수가 증가되는데, 반복가출은 학업중단, 약물사용, 범죄의 가·피해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중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김성경, 2010; Toro, Lesperance & Braciszewski, 2011).

청소년의 가출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특성 중 여자 보다 남자, 낮은 자아존중감이, 가정특성 중 학대와 방임, 낮은 가족지지, 그리고 사회적 특성 중 본인과 친구의 일탈경험 및 또래지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백혜정, 방은령, 2009; 이상무, 남성희, 2012). 그러나 일회성으로 가출을 한 청소년과 반복가출을 감행한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이해하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 검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2.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이용경험과 입소자의 특성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출청소년이 가정·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2004년 이후 국고에 의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현재 119개 청소년쉼터가 설치·운영(개소예정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생 10명 중 6명은 쉼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쉼터가 위기청소년들의 보호기제로서 작용하기에 적지 않은 제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의 연간 입소정원을 감안하면 가출경험이 있는 중·고교생 1천 명 당 청소년쉼터에 입소가 가능한 인원은 약 2.75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김지연, 2015).

부족한 시설수와 입소정원 외, 청소년쉼터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중요 문제 중 하나는 가출청소년들의 쉼터 이용을 망설이게 만드는 각종 요인들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가출청소년은 연간 13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약 30%가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US House of Representatives, Education and Labor Committee, 1992). 가출 청소년의 규모에 비하여 쉼터 입소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로 지적된다.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차 이들이 가출기간 중 잠을 잔 장소로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남자 44.8%, 여자 49.8%), ‘쉼터’라는 응답은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였다(남미애 외, 2012).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출청소년이 쉼터 이용을 불편해 하고, 특히 거리청소년은 쉼터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박현동, 2014). 즉, 낮은 수준의 쉼터 이용률은 청소년쉼터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의 문제 뿐 아니라 시설생활 동안 따라야 하는 규칙과 규율에 대한 가출청소년들의 거부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Slensnick, 2004).

쉼터에 대한 거부감 이외, 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과 그러한 경험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에 대해 6주 동안 보호지원을 할 경우 이들의 약물사용, 가족관계, 자존감 등 행동과 태도 전반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효과는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소멸되었다(Pollio, Thompson, Tobias, Reid & Spitznagel, 2006). 이는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 대다수가 고위기군으로, 일정기간 보호지원을 받은 후 퇴소하더라도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이 변하지 않으면, 위기와 탈위기를 반복하는 회전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소년쉼터 1개소 당 범죄 가·피해 경험자는 3명,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4명, 자살시도 1.6명, 보호처분자 1.5명, 성범죄 가·피해자가 1.3명이나 되었다(김지연, 정소연, 2014). 또한 청소년쉼터 입소자 가운데 원가정이 차차상위 이하 빈곤가정인 경우가 전체 입소자 10명 중 6명에 달하고, 가정복귀가 가능한 청소년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4).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통해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쉼터 이용 가출청소년과 비이용 가출청소년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쉼터의 존재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알고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중·고교생, 위기청소년 집단에 대해 독립적으로 표집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중 중·고교생데이터와 위기청소년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구축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고교생 표본의 경우 확률표집을 활용함으로써 중·고교생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었고, 위기청소년 표본은 반대로 청소년쉼터 및 소년원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출청소년은 학교 내외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두 표본을 합하여 함께 분석을 해야만 가출청소년들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으며 그 특성 역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가출횟수에 따라 구별된 세 집단(무가출, 가출1회, 반복가출)간 차이를 규명하고, 각기 다른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 데이터 전체가 사용되었다. 반면, 청소년쉼터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따라 구별된 세 집단(쉼터미인지, 쉼터비이용, 쉼터이용)간 차이와 집단특성을 규명하려는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두 표본은 크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범주별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표본1에는 총 12,618명이 포함되었는데, 이중 남자가 54.5%, 여자가 45.5%로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은 만 15세 이하 43.3%, 만 16~18세 56.2%, 만 19~20세 0.4%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연령은 15.64(sd=1.67)세였다. 이 표본은 40.4%의 중학생, 36.0%의 일반계고교생, 18.9%의 전문계고교생, 2.8%의 소년원생, 그리고 2.0%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표본1에 포함된 청소년 중 가정경제수준을 ‘보통’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70.5%였고, ‘높다’와 ‘낮다’로 평가한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12.6%와 16.9%로 확인되었다. 이 표본에서 양친(兩親)가정의 비율은 89.3%였다. 표본2는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3,669명으로 구성되었다. 표본2에서도 남자가 여자

보다 많았으며(55.4 : 44.6), 평균연령이 15.59(sd=1.69)세로 표본1의 평균연령과 거의 동일하였다. 연령대별로는 만 16~18세 연령대가 54.8%, 만15세 이하가 44.6%, 만 19~20세가 0.6%의 분포를 보였다. 이 표본은 중학생 40.5%, 일반계고교생 34.7%, 전문계고교생 18.8%, 소년원생 4.2%, 학교 밖 청소년 1.9%로 구성되어, 학교급에 있어 전반적으로 표본1과 유사하였으나 소년원학교 재학생 비율은 4.2%로 2.8%를 기록한 표본1보다 다소 높았다. 이 표본에서 가정경제수준을 '낮다'고 평가한 청소년의 비율은 16.5%였던 반면, '보통'과 '높다'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각각 12.2%와 71.2%로 집계되었다. 표본2에서 양친가정 청소년의 비율은 88.9%였다.

표 1
연구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범주	표본1 (N=12,618)		표본 2 (N=3,669)	
		빈도	유효%	빈도	유효%
성별	남	6,880	54.5	2,032	55.4
	여	5,738	45.5	1,637	44.6
연령 (평균: 15.6) (표준편차: 1.7)	만 15세 이하	5,466	43.3	1,638	44.6
	만 16~18세	7,096	56.2	2,009	54.8
	만 19~20세	56	0.4	22	0.6
재학 중 학교	중학교	5,079	40.3	1,485	40.5
	일반계 고교	4,540	36.0	1,274	34.7
	전문계 고교	2,382	18.9	688	18.8
	소년원(중 & 고교)	355	2.8	153	4.2
	학교 밖	258	2.0	69	1.9
양친(兩親)가정 여부	예	11,265	89.3	3,261	88.9
	아니오	1,353	10.7	408	11.1
가정경제수준(인식)	높음	1,589	12.6	449	12.2
	보통	8,891	70.5	2,614	71.2
	낮음	2,138	16.9	606	16.5
표본 추출 기관	학교	11,854	93.9	3,403	92.8
	보호관찰소	50	0.4	15	0.4
	소년원	518	4.1	189	5.2
	가출청소년쉼터	196	1.6	62	1.7

2.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다변량판별분석(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이 주된 분석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판별분석은 종속변수가 명목 또는 서열척도로 측정된 비계량형(non-metric) 변수이고, 독립변수가 계량적(Metric) 연속형 변수이거나 더미변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분석방법 중 하나이다. 판별분석은 미리 규정된 집단들, 즉 종속변수의 여러 범주 간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판별함수를 독립변수들에 기초하여 도출해 낸 다음, 이를 기반으로 각 집단의 중심값(group centroid) 혹은 판별점수(discriminant score)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게 된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Tabachnick & Fidell, 2007).¹⁾ 판별분석을 포함한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0.0이 활용되었다.

3. 변수측정방법

1) 종속변수

첫 번째 연구목적을 위한 분석의 종속변수는 ‘가출횟수’이다. 본 분석에서 이 변수는 가출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無가출청소년, 가출을 1회만 경험한 청소년, 가출을 2회 이상 경험한 반복가출 청소년과 같이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 연구목적을 위한 분석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쉼터 인지 및 이용여부’이다. 이 변수는 청소년쉼터의 존재를 모르는 쉼터미인지(未認知)집단, 청소년쉼터를 알지만 이용하지 않은 쉼터비이용(非利用)집단, 청소년쉼터의 존재를 알고 이용한 적도 있는 쉼터이용(利用)집단으로 분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1) 판별분석에서 각 집단의 중심값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면 종속변수의 범주들은 서로 각각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 서로 다른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판별분석은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별 각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집단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2) 독립변수

본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그 특성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 적응변수, 비행행위변수로 범주화될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로 성별, 연령, 양친(兩親)가정 여부, 가정경제수준(인식)이 사용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0, 여자는 1로 부호화되었다. 연령은 데이터 수집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의미한다. 양친가정 여부는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父만 있는 경우,母만 있는 경우,父母가 모두 없는 경우 등 4개 범주로 측정되었으나 본 분석에서는 양친가정과 비(非)양친가정으로만 구분되어, 각각 0과 1로 부호화된 변수가 사용되었다. 가정경제수준은 5점 리커트척도(①매우 못하는 편~⑤매우 잘사는 편)로 측정되었으며, 그대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적응관련 변수로는 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갈등, 학업성적,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활용되었다. 생활만족도는 5점 리커트척도(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로 측정된 가정생활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를 합산한 것으로 최소 2점에서 10점까지의 분포를 갖는다. 학업성적은 5점 리커트척도(①매우 못하는 편~⑤매우 잘하는 편)로 측정되었으며, 학교폭력피해경험은 6점 리커트척도(①평생 한 번도 없다~⑤5회 이상)로 측정되었다. 부모와의 갈등은 4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부모와의 갈등이 전혀 없거나 가끔 있다는 응답은 0으로, 자주 혹은 매우 자주 있다는 응답을 1로 재부호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행행위와 관련해서는 지위비행, 성(性)비행, 폭력비행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지위비행은 멀티방/룸카페 이용, 비디오방/DVD방 이용, 성인용주점 이용, 성인용무도장 이용, 음주, 흡연 등 6개 행위에 대해 6점 리커트척도(①평생 한 번도 없다~⑤일주일 3회 이상)로 측정되었으며 그 합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는 표본1에서 .766, 표본2에서 .773으로 확인되었다. 성비행은 성적접촉과 성교행위를 각각 6점 리커트척도(①평생 한 번도 없다~⑤5회 이상)로, 그리고 폭력비행은 폭행, 욕설/폭언, 돈/금품갈취, 왕따시키기 등 4개 행위를 5점 리커트척도(①한 번도 없다~⑤일주일 3회 이상)로 측정된 값으로, 두 변수 모두 합산값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폭력비행의 Cronbach의 알파값은 표본1에서 .700, 그리고 표본2에서 .664로 확인되었다.

IV. 연구결과

1. 가출횟수로 구분된 세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가출횟수에 따라 구분된 3개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이라 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적응, 비행행동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판별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두 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함수의 χ^2 검증결과가 모두 유의하였는데($p < .001$), 이는 두 판별함수 모두 무가출, 가출1회, 반복가출 집단을 유의하게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윌크스람다와 정준상관계수에 기초할 때 함수1은 세 집단을 구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함수2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윌크스람다는 총 변량 중 집단 내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 값이 작을수록 집단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함수1의 윌크스람다는 .758인 반면 함수2는 그 보다 높은 .997을 기록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수와 판별점수와의 상관성을 의미하는 정준상관계수의 경우 함수1은 .490, 함수2는 .056이었다. 이는 함수1이 종속변수(판별점수) 변량의 약 24.0%(.490²)를 설명하는 반면 함수2는 0.3%(.056²)만을 설명한다는 것을 뜻한다.

$$D_1 = (-.184) + (.020)\text{성별} + (-.086)\text{연령} + (.488)\text{양친가정} + (.031)\text{가정경제수준} \\ + (-.080)\text{생활만족도} + (.358)\text{부모와의 갈등} + (-.127)\text{학업성적} \\ + (.213)\text{지위비행} + (.131)\text{성비행} + (.087)\text{폭력비행} + (.144)\text{학교폭력피해}$$

$$D_2 = (-3.454) + (.782)\text{성별} + (.076)\text{연령} + (.386)\text{양친가정} + (.734)\text{가정경제수준} \\ + (.371)\text{생활만족도} + (-.938)\text{부모와의 갈등} + (.284)\text{학업성적} \\ + (-.012)\text{지위비행} + (.145)\text{성비행} + (.123)\text{폭력비행} + (-.072)\text{학교폭력피해}$$

표 2

가출횟수에 따른 3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카이제곱 (χ^2)	자유도 (df)	p 값 (p-value)
1	.316	.490	.758	3501.906	22	.000
2	.003	.056	.997	39.380	10	.000

가출횟수에 따른 세 집단의 차이는 그림1에서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함수1과 2를 각각 X와 Y축으로 하는 산점도에서, 무가출 청소년들은 좌측에 집중된 반면 반복가출 청소년들은 오른쪽 영역까지 널리 퍼져 있으며, 가출1회 청소년들은 이 두 집단의 사이에 주로 포진해 있다. 집단의 중심점 역시 함수1(X축)을 기준으로 무가출 집단이 가장 왼쪽에, 반복가출집단이 가장 오른쪽에, 그리고 가출1회집단은 그 사이에 위치하는 등 비교적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 반면 함수2(Y축)에 기초할 때, 세 집단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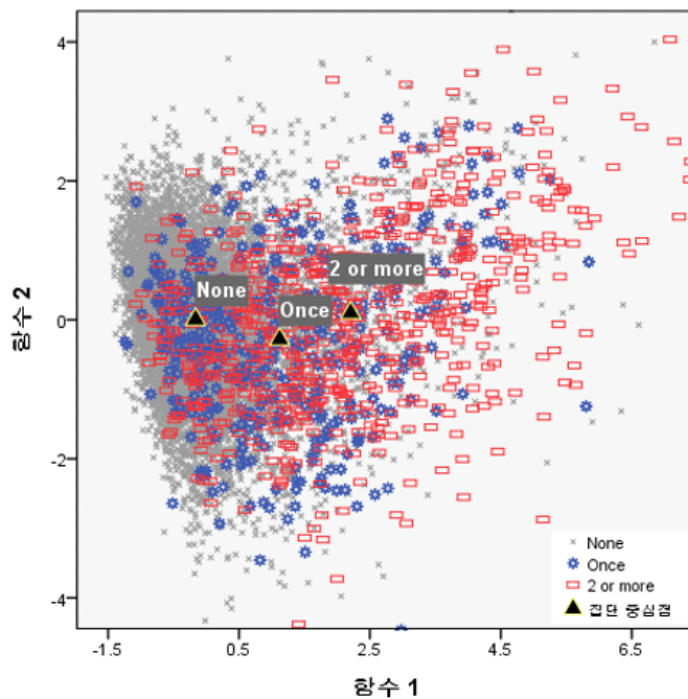


그림 1. 가출횟수에 따른 3개 집단의 산점도

판별분석 분류함수의 집단예측적중률과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은 모두 91.0%로 사전확률에 근거한 비율우연기준치(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84.2%²⁾를 상회하였

2) 집단A의 사전확률(0.915), 집단B의 사전확률(.033) 집단C의 사전확률(.051)을 각각 제공한 후 합한 값이다.

다. 한편, 각 변수와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판별적재값의 경우 보통 절대값 .30이상일 때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함수1에서는 지위비행(.877), 성비행(.668), 폭력비행(.474)이, 함수2에서는 생활만족도(.595), 부모와의 갈등(-.447)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5는 가출횟수에 따라 구별된 3개 집단이 각 독립변수에 대해 갖는 평균값이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지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 p값 .001 이하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의 경우, 무가출 집단의 평균이 0.464(sd=0.499), 가출1회 집단은 0.355(sd=0.479), 반복가출 집단은 0.347(sd=0.476)을 기록하였다. 가출횟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여자청소년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 가출횟수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무가출 집단의 평균연령은 15.617(sd=1.681)인 반면 가출1회 집단과 반복가출 집단의 평균은 각각 15.713(sd=1.641)과 15.946(sd=1.500)을 보였다. 양친가정의 경우 평균이 비양친가정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무가출 집단은 0.096(sd=0.294), 가출1회 집단은 0.175(sd=0.381), 반복가출 집단은 0.271 (sd=0.445)의 평균값을 기록함으로써, 가출횟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비양친가정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무가출, 가출1회, 반복가출 집단의 평균이 각각 2.964(sd=0.591), 2.950(sd=0.706), 2.833(sd=0.751)으로, 가출횟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가정경제수준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3

가출횟수에 따른 3개 집단 분류 결과

집단	함수1에 대한 집단중심치	함수2에 대한 집단중심치	예측 소속집단			사례수	적중률 (교차유효화 집단적중률)
			집단 A	집단 B	집단 C		
집단A 無가출집단	-0.164	0.005	11,201 (97.0%)	0 (0%)	349 (3.0%)	11,550	
집단B: 가출1회집단	1.117	-0.283	334 (79.1%)	0 (0%)	88 (20.9%)	422	91.0% (91.0%)
집단C: 반복가출집단	2.200	0.100	366 (56.7%)	0 (0%)	280 (43.3%)	646	

표 4

가출횟수에 따른 3개 집단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와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판별적재값)	
	함수 1	함수 2	함수 1	함수 2
성별 ^a	.010	.389	-.111	.272
연령	-.144	.127	.077	.146
양친(兩親)가정 ^b	.150	.118	.235	.148
가정경제수준(인식)	.019	-.444	-.080	-.284
부모와의 갈등 ^c	.124	-.325	.225	-.447
생활만족도	-.134	.621	-.270	.595
학업성적	-.117	.260	-.245	.275
학교폭력피해	.115	-.057	.266	-.076
지위비행	.673	-.038	.877	.086
성(性)비행	.256	.284	.668	.295
폭력비행	.199	.281	.474	.219

a 남=0; 여=1

b 양친가정=0; 한부모 등 그 외=1

c 부모와의 갈등 전혀 없거나 가끔 있다=0;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있다=1

표 5

가출횟수에 따른 3개 집단 평균 동질성 검증

변수	윌크스람다 (Wilks' Lamda)	F 값 (df=2, 12615)	p 값	집단 평균 (표준편차)		
				無가출	가출1회	반복가출
성별 ^a	.996	25.861	.000	0.464 (0.499)	0.355 (0.479)	0.347 (0.476)
연령	.998	12.229	.000	15.617 (1.681)	15.713 (1.641)	15.946 (1.500)
양친(兩親)가정 ^b	.983	110.675	.000	0.096 (0.294)	0.175 (0.381)	0.271 (0.445)
가정경제수준(인식)	.998	14.355	.000	2.964 (0.591)	2.950 (0.706)	2.833 (0.751)
부모와의 갈등 ^c	.984	105.153	.000	0.128 (0.335)	0.273 (0.446)	0.299 (0.458)

변수	윌크스람다 (Wilks' Lamda)	F 값 (df=2, 12615)	p 값	집단 평균 (표준편차)		
				무가출	가출1회	반복가출
생활만족도	.976	151.871	.000	7.369 (1.648)	6.507 (1.892)	6.393 (1.947)
학업성적	.981	121.097	.000	2.945 (0.912)	2.585 (0.930)	2.437 (0.995)
학교폭력 피해	.978	141.189	.000	0.223 (0.742)	0.514 (1.124)	0.723 (1.375)
지위비행	.804	1534.315	.000	7.441 (2.873)	10.925 (4.530)	14.040 (5.846)
성(性)비행	.876	889.983	.000	0.579 (1.717)	2.090 (3.106)	3.724 (3.943)
폭력비행	.933	449.618	.000	5.025 (2.086)	6.275 (3.058)	7.641 (4.249)

a 남=0; 여=1

b 양친가정=0; 한부모 등 그 외=1

c 부모와의 갈등 전혀 없거나 가끔 있다=0;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있다=1

부모와의 갈등은 가출횟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었다. 무가출 집단의 평균은 0.128(sd=0.335)이었으나, 가출1회 집단과 반복가출 집단의 평균은 이 보다 높은 0.273(sd=0.446)과 0.299(sd=0.458)를 기록하였다. 반면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적은 가출횟수와 반비례적 관계성을 보여주었다. 가출1회 집단과 반복가출 집단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각각 6.507(sd=1.892)과 6.393(sd=1.947)이었으나 무가출 집단의 평균은 7.369(sd=1.648)로 더 높은 수준이었다. 학업성적의 경우, 무가출, 가출1회, 반복가출 집단 평균이 각각 2.945(sd=0.912), 2.585(sd=0.930), 2.437(sd=0.995)로서 가출횟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세 집단은 비행행동과 학교폭력피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무가출, 가출1회, 반복가출의 순으로 집단의 평균값을 제시하면, 학교폭력피해는 0.223(sd=0.742), 0.514(sd=1.124), 0.723(sd=1.375), 지위비행은 7.441(sd=2.873), 10.925(sd=4.530), 14.040(sd=5.846), 성비행은 0.579(sd=1.717), 2.020(sd=3.106), 3.724(sd=3.943), 폭력비행은 5.025(sd=2.086), 6.275(sd=3.058), 7.641(sd=4.249)과 같다. 이를 통해, 가출횟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비행정도가 심각해질 뿐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성 역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쉼터 인지·이용 여부로 구분된 세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청소년쉼터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따라 구별된 쉼터미인지집단, 쉼터비이용집단, 쉼터이용집단이 서로 다른지, 만약 그렇다면 이 세 집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적응, 비행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행하였다. 도출된 2개의 판별함수에 대한 χ^2 검증결과는 p값 .001이하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두 함수 모두 세 집단을 유의하게 구별한다는 것이다.

$$D_1 = (-1.564) + (.444)\text{성별} + (-.007)\text{연령} + (1.305)\text{양친가정} + (-.091)\text{가정경제수준} \\ + (-.054)\text{생활만족도} + (.469)\text{부모와의 갈등} + (-.018)\text{학업성적} \\ + (.163)\text{지위비행} + (.094)\text{성비행} + (.111)\text{폭력비행} + (.047)\text{학교폭력피해}$$

$$D_2 = (-5.313) + (1.447)\text{성별} + (.263)\text{연령} + (-.683)\text{양친가정} + (-.122)\text{가정경제수준} \\ + (.099)\text{생활만족도} + (-.598)\text{부모와의 갈등} + (.235)\text{학업성적} \\ + (-.088)\text{지위비행} + (.245)\text{성비행} + (.029)\text{폭력비행} + (.088)\text{학교폭력피해}$$

특히 함수1이 함수2에 비하여 종속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함수1의 윌크스람다 수치가 .850으로 .992의 함수2 보다 낮았는데, 이는 함수1에서 집단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함수1과 함수2의 정준상관계수는 각각 .378과 .091을 기록하였다. 즉, 함수1이 종속변수(판별점수) 변량의 약 14.3%(=.378²)를 설명하는 반면, 함수2는 약 0.8%(.091²)만을 설명함을 알 수 있다.

표 6
쉼터 인지 및 이용에 따른 3개 집단 판별분석 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카이제곱 (χ^2)	자유도 (df)	p 값 (p value)
1	.166	.378	.850	593.866	22	.000
2	.008	.091	.992	30.282	10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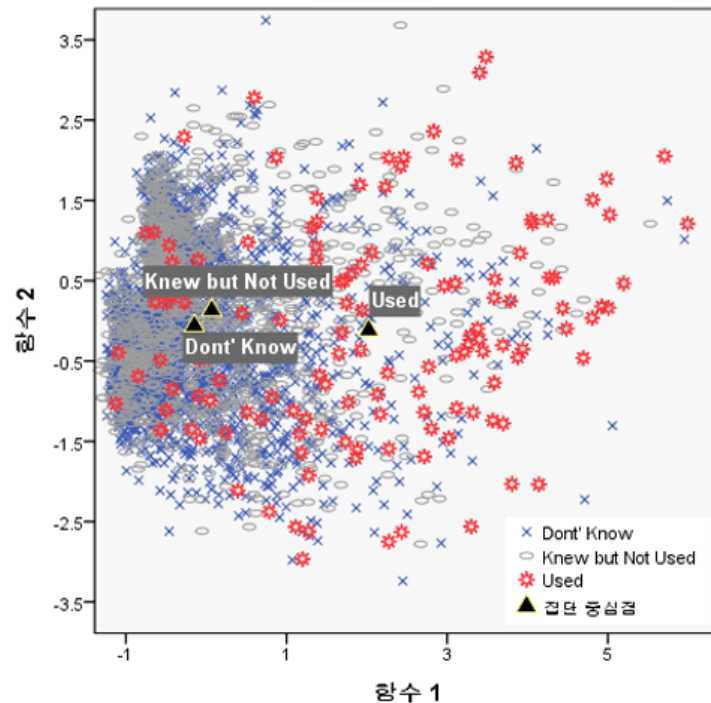


그림 2. 쉼터 인지/이용에 따른 3개 집단의 산점도

쉼터미인지집단, 쉼터비이용집단, 쉼터이용집단이 두 개의 판별함수에 의해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산점도에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함수1과 2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산점도에서 쉼터미인지 및 비이용 청소년들은 주로 좌측에 집중된 반면, 쉼터이용 경험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함수1(X축)에 대한 집단중심치에서도 확인된다. 쉼터이용 집단의 중심치는 2.001로, -0.149의 쉼터미인지집단이나, 0.070의 비이용집단과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Y축(함수2)에 기초할 때, 세 집단 간 차이는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집단중심점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표 7

쉼터 인지 및 이용에 따른 3개 집단 분류 결과

집단	함수1에 대한 집단중심치	함수2에 대한 집단중심치	예측 소속집단			사례수	적중률 (교차유효화 집단적중률)
			집단 D	집단 E	집단 F		
집단D: 쉼터미인지집단	-0.149	-0.059	2,277 (96.5%)	8 (0.3%)	75 (3.2%)	2,360	
집단E: 쉼터비이용집단	0.070	0.131	1,100 (93.7%)	9 (0.8%)	65 (5.5%)	1,174	63.9% (63.8%)
집단F: 쉼터이용집단	2.001	-.0117	73 (54.1%)	3 (2.2%)	59 (43.7%)	135	

표 8

쉼터 인지 및 이용에 따른 3개 집단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와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판별적재값)	
	함수 1	함수 2	함수 1	함수 2
성별 ^a	.220	.718	.058	.662
연령	-.012	.444	.146	.378
양친(兩親)가정 ^b	.402	-.211	.485	-.242
가정경제수준(인식)	-.055	-.073	-.173	-.018
부모와의 갈등 ^c	.159	-.203	.265	-.227
생활만족도	-.092	.170	-.260	.202
학업성적	-.017	.220	-.211	.278
학교폭력 피해	.041	.076	.252	.023
지위비행	.562	-.302	.796	-.047
성(性)비행	.190	.495	.634	.305
폭력비행	.269	.069	.507	-.067

a 남=0; 여=1

b 양친가정=0; 한부모 등 그 외=1

c 부모와의 갈등 전혀 없거나 가끔 있다=0;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있다=1

판별분석 분류함수의 집단예측적중률은 63.9%였으며,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63.8%)도 이와 거의 동일하였다. 이는 사전확률에 근거한 비율우연기준치 51.7%³⁾를 약 25% 상회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한편 구조행렬의 판별적재값은 각 독립변수와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와의 상관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데, 함수1에서는 지위비행(.796), 성비행(.634), 폭력비행(.507), 양친가정(.485)이, 함수2에서는 성별(.662), 연령(.378), 성비행(.305)이 .30 보다 높은 적재값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컴퓨터 미인지집단, 비이용집단, 이용집단이 각 독립변수에 대해 갖는 집단평균값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표9에 정리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 세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먼저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컴퓨터미인지집단에서 0.422(sd=0.494), 컴퓨터비이용집단에서 0.491(sd=0.500), 컴퓨터이용집단에서 0.467(sd=0.501)의 평균값이 관찰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컴퓨터미인지집단에서 가장 낮고 컴퓨터비이용집단에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평균연령은 컴퓨터미인지집단에서 15.514(sd=1.711) 가장 낮았고, 컴퓨터비이용집단과 컴퓨터이용 집단에서 각각 15.690(sd=1.639)과 16.015(sd=1.500)로 나타나, 가출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컴퓨터를 알고, 이를 이용할 가능성도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양친가정의 경우 컴퓨터미인지집단과 컴퓨터비이용집단의 평균값이 각각 0.093(sd=0.291)과 0.112(sd=0.315)인이었던 반면 컴퓨터이용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0.422(sd=0.496)를 기록하였다. 이는, 컴퓨터이용 청소년의 42.4%가 非양친가정 출신인 반면, 컴퓨터의 존재를 모르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 가출청소년에게 있어 그 비율은 약 10%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컴퓨터미인지집단과 비이용집단에서 각각 2.974(sd=0.590)와 2.949(sd=0.608)의 평균값이, 그리고 컴퓨터이용집단에서는 2.748(sd=0.760)의 평균값이 관찰되었다. 이는 컴퓨터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원가정의 경제수준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컴퓨터이용집단은 부모와의 갈등, 생활만족도, 학업성적에 있어서도 다른 두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부모와의 갈등에 있어서, 컴퓨터미인지 집단과 비이용집단의 평균이 각각 0.126(sd=0.332)과 0.131(sd=0.338)이었던 반면 컴퓨터이용집단은 0.326(sd=0.470)으로 상대적으로 그 값이 높았다.

3) 집단D의 사전확률(0.643), 집단E의 사전확률(.320) 집단F의 사전확률(.037)을 각각 제공한 후 합한 값이다.

표 9

컴퓨터 인지 및 이용에 따른 3개 집단 평균 동질성 검증

변수	윌크스람다 (Wilks' Lamda)	F 값 (df=2, 3666)	p 값	집단 평균 (표준편차)		
				컴퓨터미인지 (未認知)집단	컴퓨터비이용 (非利用)집단	컴퓨터이용 (利用)집단
성별 ^a	.996	7.703	.000	0.422 (0.494)	0.491 (0.500)	0.467 (0.501)
연령	.995	8.718	.000	15.514 (1.711)	15.690 (1.635)	16.015 (1.500)
양친(兩親)가정 ^b	.962	72.637	.000	0.093 (0.291)	0.112 (0.315)	0.422 (0.496)
가정경제수준(인식)	.995	9.112	.000	2.974 (0.590)	2.949 (0.608)	2.748 (0.760)
부모와의 갈등 ^c	.988	22.134	.000	0.126 (0.332)	0.131 (0.338)	0.326 (0.470)
생활만족도	.989	21.176	.000	7.334 (1.691)	7.303 (1.706)	6.348 (2.162)
학업성적	.992	14.713	.000	2.910 (0.941)	2.917 (0.917)	2.467 (1.028)
학교폭력 피해	.990	19.374	.000	0.256 (0.839)	0.307 (0.860)	0.726 (1.212)
지위비행	.905	193.149	.000	7.483 (3.056)	8.050 (3.731)	13.441 (6.172)
성(性)비행	.937	123.897	.000	0.556 (1.724)	0.952 (2.275)	3.296 (3.698)
폭력비행	.959	78.457	.000	5.314 (2.249)	5.550 (2.480)	7.985 (4.145)

a 남=0; 여=1

b 양친가정=0; 한부모 등 그 외=1

c 부모와의 갈등 전혀 없거나 가끔 있다=0;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있다=1

생활만족도의 경우 컴퓨터미인지집단과 컴퓨터비이용집단의 평균이 각각 7.334 (sd=1.691)

와 7.303(sd=1.706)으로 서로 유사했으나 컴퓨터이용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6.348(sd=2.162)을 기록했다. 학업성적 역시 컴퓨터미인지집단과 비이용집단의 평균이 각각 2.910(sd=0.941)과 2.917(sd=0.917)로 유사한 반면, 컴퓨터이용집단은 2.467(sd=1.028)로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폭력피해에 있어서도 컴퓨터이용집단이 0.726(sd=1.212)의 가장 높은 평균값을 기록함으로써, 0.256(sd=0.839)의 컴퓨터미인지집단 및 0.307(sd=0.860)의 컴퓨터비이용집단과 확연히 구별되었다.

학교폭력피해 및 비행경험과 관련해서도 컴퓨터이용 집단과 다른 두 집단과의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컴퓨터미인지집단과 비이용집단의 지위비행 평균은 각각 7.483(sd=3.056)과 8.050(sd=3.731)이었으나 컴퓨터이용집단의 평균은 13.441(sd=6.172)로 큰 차이가 있었다. 폭력비행의 경우도 앞의 두 집단의 평균값이 각각 5.314(sd=2.249)와 5.550(sd=2.480)으로 유사한 반면 컴퓨터이용집단의 평균은 이보다 높은 7.985(sd=4.145)를 기록하였다. 성비행의 평균값 역시 컴퓨터미인지 집단이 0.556(sd=1.724)으로 가장 낮았고, 컴퓨터이용 집단이 3.296(sd=3.698)으로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비이용 집단이 0.952(sd=2.275)로 중간적 위치에 있었다.

V. 논 의

이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은 가정 밖 위기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가출횟수와 청소년컴퓨터 이용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여부와 특성에 대한 검증은 시도하였다. 연구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가출횟수에 따라 구분된 세 집단 즉, 무가출집단, 가출1회집단, 반복가출집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적응, 비행행동 측면에서 어떤 차이와 특성을 보이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청소년컴퓨터 인지 및 이용경험에 따라 구분된 컴퓨터미인지집단, 컴퓨터비이용집단, 컴퓨터이용집단 간의 차이와 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2012년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의 중·고교생 데이터와 위기 청소년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구축한 후 2차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각각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판별분석과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종속변수인 가출횟수

에 따라 구분된 무가출집단, 가출1회집단, 반복가출집단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적응, 비행측면에서 서로 유의하게 다른 집단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세 집단은 모든 독립변수의 평균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반복가출집단은 취약성, 위기 정도가 확연하게 두드러졌다. 이들은 남자청소년, 고연령, 비양친가정에서 성장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경제수준은 낮게 인식하고 부모와의 갈등 정도는 높고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적은 낮았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 지위비행, 성비행, 폭력비행 정도는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에 있어 가출경험의 유무 뿐 아니라 가출을 한 번 경험한 청소년과 반복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정책대상이며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집단 간 차이와 특성을 통해 청소년기 가출의 경향도 일부 관찰되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반복가출이 많고,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출행동도 증가하였다. 특히 세 집단 간 가정환경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반복가출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원가정이 비양친가정, 빈곤가정, 부모자녀 간 갈등 정도가 심하였다. 쉼터 입소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정숙(2014)의 연구에서도 비양친가정 여부가 반복가출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비양친가정의 경우 가족구조로 인해 자녀의 지도감독에 공백이 발생하여 첫 가출 시 제지가 없었거나 가정 내 방임, 학대로 인해 가출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반복가출은 가족의 유대를 더욱 약화시키고 청소년을 홀로 생존, 자립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데 저학력, 비숙련 청소년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도 낮기 때문에 각종 범죄의 가·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과 가출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집단 역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적응, 비행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가출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집단은 무가출집단에 비하여 학교폭력 피해, 지위 비행, 성비행, 폭력비행의 가·피해 정도가 높기 때문에 가출행동은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개입의 트리거(trigger)로 간주하고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상황의 다층성을 감안할 때 가출행동 자체를 억제하기보다 가출을 유발하는 가정 내 상황과 여건에 대한 조기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Rees(2011)의 지적과 같이 가출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가출청소년이 직면하는 위험정도가 증가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가출횟수가 많아질수록 위험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만큼, 청소년기 생애가출경험률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청소년이 가출 이후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과 위기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종속변수인 청소년쉼터 인지 및 이용여부에 따라 쉼터미인지집단, 쉼터비이용집단, 쉼터이용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와 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 역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적응, 비행측면에서 동질적이지 않은 집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 집단의 경우에도 모든 독립변수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쉼터이용집단은 반복가출집단과 마찬가지로 취약성, 위기정도가 확연하게 두드러졌다. 즉, 쉼터이용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고연령, 비양친가정의 비율이 높았고, 부모와의 갈등 정도는 높았으며, 가정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하였고,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적 역시 낮았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 지위비행, 성비행, 폭력비행 정도는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요보호아동의 경우 지자체(담당자)에서 시설, 가정위탁 등으로 아동배치를 결정하지만 가출청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의에 의해 쉼터 입·퇴소를 결정한다. 쉼터의 규칙, 규율이 다소 불편하여 가출청소년이 이용을 기피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은 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취약한 가정환경 요인으로 인해 가정복귀도 쉽지 않고, 반복가출 과정에서 친구와 지인 등에 의지하기 어려운 고립무원(孤立無援)의 고위기청소년이 결국 쉼터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쉼터는 가출청소년 긴급보호시설로서 위기청소년의 대안양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수(2013)의 연구에서도 반복가출 청소년이 적응, 자립으로 전환되는 요인은 스스로의 동기와 쉼터의 지원임이 확인된 바 있다. 남미애(2011)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의 생활만족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쉼터가 일시적인 생계유지와 보호차원을 넘어 의식주, 직원, 동료,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설, 환경 등 다차원적 만족도를 제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발달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쉼터는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시설이 아니라 치료와 치유, 회복, 자립 동기 형성을 위한 전문적 개입이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가출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통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2012년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대표성을 확보한 정부 승인통계라는 장점이 있지만 초등학생, 위기청소년 표본은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2015년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이 동일한 정책대상이 아닌 만큼 가출청소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가출청소년 실태조사의 근거가 명시되도록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가출 이후 청소년이 ‘가정 밖’이라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가출행동 자체보다 원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2년도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생애가출경험률을 적용하면 가출을 경험한 중·고교생은 약 4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청소년기 가출행동을 지위비행으로 간주할 경우 중·고교생 중 비행, 일탈자만 45만 명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취지와 순기능을 감안하더라도, 보호처분은 신체적 구속을 포함하여 지위비행자에 대한 낙인을 전제로 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기 가출의 원인보다 가출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생애가출경험률은 비행, 일탈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가 아닌,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표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같은 자료에서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중·고교생의 경우 가출기간이 ‘하루’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반면, 소년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경우 가출기간이 ‘한 달 이상’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6명을 넘었다. 이 연구에서도 만성가출집단의 위기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가출 이후 거리생활이 길수록 학업중단, 약물사용, 범죄행위 등 부정적인 문제와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Toro et al., 2011)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첫 가출이 반복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반복가출경험이 있는 경우 선도방식의 접근을 탈피하여 빈곤, 가정 내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정(assessment)과 가출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학교나 SNS를 통하여 청소년전화 1388, CYS-Net, 청소년쉼터 등

지원 경로(routes)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가출 전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가출 이후에는 범죄의 가·피해 경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청소년쉼터 입소자에 대한 전문적, 집중적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가출 이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집단이 가정환경과 위기정도에 있어 가장 취약하여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과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즉,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가정 밖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취약계층이므로 우선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을 제공받아야 할 정책대상이라 하겠다. 특히 최일선에서 가출청소년을 돌보는 쉼터에 대한 운영지원이 입소 청소년 보호에 적합한 수준인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가정법원의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을 보면 부모의 합산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월 평균 양육비는 608,000원, 18세 이상 21세 미만 자녀는 월 평균 959,000원이다.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최저양육비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의 질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거리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방임행위이므로 제재 및 지원여부에 대한 사정(assessment) 단계를 강화하고, 부양의지가 없는 보호자에게 청소년쉼터에서의 대안양육과 이에 따른 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가출경험, 청소년쉼터 인지 및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가출청소년의 집단 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가출청소년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주로 쉼터 입소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중고교 재학생만을 표본으로 선정한 한계를 보인 반면, 본 연구는 학교 안팎에 존재하는 가출(경험) 청소년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규명한 것이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다. 다만 확률표집에 기초한 중고교생 데이터와 편의표집에 의거한 위기청소년 데이터를 결합시킴으로써 표본오차 산출 불가 등 표본의 대표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손실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대표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 집단’ 표집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연구의 주목적이 전체 청소년집단의 가출경험을 산출이 아니라 가출청소년 내 하위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통합적 데이터 구축은 적절한 연구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2차 자료분석의 한계로 인해 독립변수 선정에 제약이 있어 집단 간 차이와 특성을 제한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점과 적절한 척도를 사용하여 독립변수들을 측정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한계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한 유해물 규정과 청소년비행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준용하여 지위비행, 성비행, 폭력비행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지위비행 규정 철폐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정책 및 후속연구에서 용어 대체를 위한 실제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2). 경찰청 브리핑: 2012년 제3회 전국보호시설 및 도서지역 일제수색 결과.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1 &nttId=8521&menuNo=200067](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1&nttId=8521&menuNo=200067)에서 인출.
- _____ (2014). 내부자료.
- 김성경 (2010). 가출경험 중고등학생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및 폭력피해 경험과 가출 빈도 관련성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7, 93-111.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김지연 (2015).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 1-8.
- 김지혜 (2005).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207-234.
- _____ (2013). 가출의 비범죄화. **소년보호연구**, 23, 35-60.
- 남미애 (2011).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의 요인별 생활만족이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03-229.
-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김은경 (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박현동 (2014). **현장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연구보고 09-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제처 (201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moleg.go.kr>에서 2015년 9월 12일 인출.
- 법제처 (2015).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moleg.go.kr>에서 2015년 9월 1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2).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윤선미, 이나영 (2012). 청소년의 가출 후 경험 연구: 경계들 사이의 생존 지대를 찾아. **한국여성학**, 28(4), 119-171.

- 이민수 (2013). 청소년의 반복가출과 가출전환 경험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87-119.
- 이상무, 남성희 (2012). 청소년 가출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9(1), 85-108.
- 정정숙 (2014). *남녀 가출청소년의 가정 복귀 및 반복 가출 관련요인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Fernandes-Alcantara, A. L. (2013). Runaway and homeless youth: Demographics and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Report for Congress (Vol. 7-5700).
- Gibson, K. E. (2011). *Street kids: Homeless youth, outreach, and policing New York's streets*. NY: NYU Press.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Jones, L. P. (1988). A typology of adolescent runaway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5(1), 16-29.
- Miles, B. W., & Okamoto, S. K. (2008). The social construction of deviant behavior in homeless and runaway youth.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5, 425-441.
- Pergamit, M. R. (2010). On the lifetime preval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Pollio, E. P., Thompson, S. J., Tobias, L., Reid, D., & Spitznagel, E. (2006). Longitudinal outcomes for youth receiving runaway, homeless shelter servi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859-866.
- Rees, G. (2011). Still running 3: Early findings from our third national survey of young runaways. The Children's Society. makerunawayssafe.org.uk.
- Slensnick, N. (2004). *Our runaway and homeless youth: A guide to understanding*. Westport, CT: Praeger.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Boston: Pearson.
- Toro, P. A., Lesperance, T. M., & Braciszewski, J. M. (2011, September) The heterogeneity of homeless youth in America: Examining typologies. *Research*

Matters: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Retrived September, 2011, from http://www.endhomelessness.org/files/4247_file_The_Heterogeneity_of_Homeless_Youth_in_America.pdf.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CRC/C/GC/10). *General Comment No.10*.

UN General Assembly (1990).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A/RES/45/112).

UN Human Rights Council (2011). Resolution 16/12 *Rights of the child: a holistic approach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working and/or living on the street*(A/HRC/RES/16/12), U.N.Doc.

U.S. House of Representatives, Education and Labor Committee. (1992). Legislative history,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amendments. U.S. Code of Law and Administrative News, House Report No. 102-756.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runaway youth groups: Focusing on runaway frequency & shelter service use

Kim, Jiyon* · Jung, Soyoon**

This study aim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Are non-runaway youth, one-time runaway youth, and repeated-runaway youth, the three groups categorized based on the frequency of running aw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f so, how are they different?; (2) Are the three runaway youth groups categorized based on whether they knew of and/or have ever used shelter servic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f so, how are they different?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dataset 'Youth's Exposure to Deviant Behaviors and Harmful Environmen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n Government, 2012), and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 was performed.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youth groups. Specifical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peated runaway youth and runaway youth who had used shelter services were more likely to be children from poor and non-intact families, to have had experience of family conflict and school violence, and to have been involved in various problem behaviors such as cigarette use and fighting, compared to their peers. Based on the results, a number of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runaway youth, frequency of runaway, shelter service,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

투고일: 2015. 9. 14, 심사일: 2015. 9. 25, 심사완료일: 2015. 10. 27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Seoul Wome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ungsy@swu.ac.kr